

문 대통령 “대기업 고용 창출 앞장”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최대 당면 현안… 신산업에 많은 투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들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줬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정부내 전담 지원관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인과의 대화 마치고 경내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인력 양성·첨단기술 사업화를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산업,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산업, 혁신부품과 소재장비 등을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

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산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사사가 함께 힘을 모으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경

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에 여러분이 앞장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올해 여러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재계 25위권 기업 대표들과 30명의 중견기업 대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

“인성교육 관심·노력 필요”

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연수원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5일 전라북도교육청 지속기 관인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을 방문·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연수원은 교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후열(부안) 의원은 “연수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내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재가 소명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연수원장의 적절한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외부강사 인력풀과 관련해 “연수성과는 강사 교수의 질에서 평가된다”면서 “강사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는 연수원장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며 연수원

장의 책임감을 주문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사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가진 인재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소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수원이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연수원 인력 관리와 관련해 “연수원이 도내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맞물려가는 톨바퀴처럼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이 융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곧 교사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이라면서 “앞으로 교육위는 연수원이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환복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5일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라북도응급의료센터지정위원회와 전라북도환격치매센터를 방문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우선 전북대병원을 찾아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전북대병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 될것을 촉구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서 메르

스, 증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등 약 80여종에 이르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시스템과 위기상황 시 신속 대응 매뉴얼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인 음압격리병상을 둘러봤다.

이어,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광역치매센터로 자리를 옮겨 급증하고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도내 치매관리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김진성 기자

“박근혜당 증명”... 여야 4당, ‘황교안 한국당 입당’ 맹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며 “황 전 총리는 입당 회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총리로서 보좌한 대통령도, 통할한 내각도 범죄가 드러나 뒷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황

“국정농단 책임·반성 없어” 전 총리는 그 무능이 심각하다. 그 어떤 죄도 자백이 없다.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전 총리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무슨 명분으로 입당하는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는 행겨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나라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나라는 ‘난국’, 황 전 총리의 인식은 ‘망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

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교안의 등장은 회극적 준비정치의 비극적 서막”이라며 “권한대행이란 대기 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쯤비,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던 인면수심의 쯤비,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 회대의 보수침정 쯤비가 황교안”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박근혜를 숙주 삼은 황교안의 등장은 언 땅을 녹였던 촛불의 슬픈 종언이자 쯤비들의 관 뚜껑을 열게 만든 무능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재앙에 다름 아니다”며 “단죄하지 못한 역사는 미래를 갉아먹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한국당이 일명 ‘박근혜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황 전 총리가 입당하면 한국당은 바로 박근혜당이다. 황 전 총리야말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라며 “(황 전 총리가) 정치하는 건 좋지만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을 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이나 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재활동도 한계가 있다”고 신랄하게 평했다. /뉴스

도의회 행자위, 익산 다문화지원센터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15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청취한 뒤 센터 근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격려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결혼이민자 1,838명, 다문화가족 자녀 1,728명이 거주 중이다. 센터는 이들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한국사회의 바른 정착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지원, 결혼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이국땅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오는 4월 개소 예정이며, 결혼이민자 등이 체류자격 변경, 인권 상담 등을 각각의 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개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내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전북도의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문화가족이 도민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